

이민과 인권: 칠레의 페루 이민자를 중심으로*

임상래(부산외대)**

- I. 들어가는 말
- II. 칠레의 국제 이민
- III. 반이민주의와 사회·경제적 차별
- IV. 반외국인주의: 제노포비아와 '생각'의 차별
- V. 반페루주의: 불신과 차별의 역사문화
- VI. 맺는 말

“Somos diferentes, pero somos iguales.”
“우리는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동등해야 한다.”

I. 들어가는 말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이민국이다. 멕시코는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이민국이며, 아르헨티나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민자 유입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 등의 주변 중미국가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나라이다.

칠레는 순이민국은 아니지만¹⁾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민자 증가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4-072-BM3062)

** Sang-Rae Lim(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Spanish, srlim@pufs.ac.kr)
“Migration and Human Rights: The Peruvian Immigrants in Chile”.

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임금 수준이나 고용 기회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이민이 유입되고 있다. 또 군정 기간 칠레를 떠났던 사람들의 역이민도 늘고 있어 칠레의 외국인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칠레는 남아메리카 국제이민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증하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페루인의 이민이 최근 수 년 간 크게 증가하여 칠레 사회의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칠레에 거주하는 페루 이민자의 실태와 그들이 칠레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인권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칠레에 있는 페루 이민자의 규모와 특성을 연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칠레사회의 다양한 인식과 시각을 반이민주의, 반외국인주의, 반페루주의로 나누어 분석하여 페루 이민자의 시민권적 조건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기실 칠레의 페루 이민과 이민자 인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우선 이민이 갖는 간국가성(internationality)으로 인해 국가 수준의 접근보다는 주로 대륙이나 지역의 현상으로 이민이 다뤄지기 때문이고, 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사회·문화적으로 동질적이어서 이 지역에서의 이민은 출신민국과 입이민국간의 양국적 관계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공통사(共通事)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레의 페루 이민은 단일의 주제로 연구되기보다는 남아메리카의 이민 흐름의 부분으로 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 중 유엔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CEPAL)의 “La migración internacional y el desarrollo en las Américas”와 세계노동기구(ILO)의 “Migraciones laborales en Sudamérica” 등이 페루 이민의 대륙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칠레의 페루 이민이 이슈로 부상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한 것은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페루 이민과 이민자 인권에 대한

1) 현재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인구는 약 180,000명이며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칠레인은 1990년 통계로 363,000명(1970년 182,000, 1980년 370,000)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Martínez Pizarro 2003, 17)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Stefoni는 최근 페루 이민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전문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녀의 전공이 여성사회학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주로 이민여성의 가사 노동과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처럼 페루 이민자 인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언급한 관련 연구물들과 함께 대학, NGO,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참고문헌으로 활용할 것이며, 동시에 관련한 내용의 언론자료도 세밀하게 분석하여 페루 이민자 인권 문제를 연구할 것이다.

연구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II장은 칠레의 입/출이민의 전개 과정과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규모와 성격을 개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이민자의 유입을 반대하는 논리로서의 반이민주의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페루인의 칠레 이민의 동인과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민 추이와 반이민주의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페루 이민자에 대한 칠레사회의 반응 패턴의 하나로서 제노포비아와 인종차별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페루 이민자에 대한 칠레인의 입장을 양국의 국경 이슈와 국민 정서 등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페루 이민이 갖고 있는 집단적 정체성과 시민권적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II. 칠레의 국제 이민

칠레의 해외이민의 전개 과정을 개괄해 보면, 독립 직후 칠레 정부는 백인화를 지향하는 입이민(immigration) 중심의 이민 정책을 추진하였다. 1824년 칠레 정부는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이민자를 모집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1853년에는 식민도시 푸에르토몬트가 건설되었고 주변지역으로 유럽 이민자, 특히 독일 식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1851-1860년 사이 독일계 이민자 3,000여 명이 발디비아와 양키우 지역에 정착하였다.(강석영 2003, 190) 1882

년 정부는 이민자에게 미경작지를 제공하는 법을 제정하고 파리에 이민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는 국경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이 결과로 1883-1895년 동안 31,000명의 북유럽인이 칠레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900년대 초에는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안토파가스타와 마젤란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선별적 이민정책의 결과로 1865-1920년 사이 칠레에 온 이민자의 52.5%가 유럽인이었다.²⁾ (Doña 2004)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는 칠레의 근대화, 즉 유럽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크게 환영받지 못했다.

당시 칠레에 온 이민자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비교할 때 수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유럽이민자들이 칠레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이들은 상업 회사의 1/3(1907), 고가 부동산의 20%(1908), 산업 시설의 49%(1914)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60년대 수도인 산티아고의 산업시설의 3/4정도가 이들 유럽이민자의 소유였다. 유럽 이민자들은 농촌이나 도시의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상부중산층(upper middle class)을 형성하였고 일부는 결혼을 통해 지배계급과 연합하기도 하였다. 메스티소나 원주민과의 인종간 혼혈은 거의 없었다. 지역적으로 유럽이민자들은 주로 안토파가스타, 산티아고, 발파라이소와 같은 광산지역에 정착했고 독일계 이민자는 남부 농업지역에 많았다.(Loveman 2001, 50)

<표 1> 칠레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1865-2002)

연도	총인구 (천명)	외국인인구 (천명)	외국인인구/ 총인구(%)	지역별외국인인구/총외국인인구(%)		
				유럽	중남미	기타 지역
1865	1,819	22	1.21	53.7	41.4	4.9
1875	2,075	25	1.21	62.3	33.0	4.7

2) 1885년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여 그 비율이 67.2%가 되었는데 이는 1879-1884년 태평양 전쟁으로 볼리비아, 페루의 일부 영토가 칠레로 편입되었기 때문이었다.

1885	2,057	87	4.23	30.1	67.2	2.7
1895	2,695	79	2.93	55.4	41.8	2.8
1907	3,231	132	4.09	53.3	42.7	4.0
1920	3,731	114	3.06	59.9	31.2	8.9
1930	4,287	105	2.46	60.0	24.6	15.4
1940	5,023	107	2.14	67.2	21.7	11.1
1952	5,932	103	1.75	55.9	23.4	20.7
1960	7,374	104	1.42	60.9	26.1	13.0
1970	8,884	90	1.02	53.3	34.4	12.3
1982	11,275	84	0.75	31.8	54.5	13.7
1992	13,348	114	0.86	20.1	65.1	14.8
2002	15,116	184	1.22	17.2	71.8	11.0

출처: Doña 2004(<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display.cfm?id=199>)

1차 대전 이후 칠레의 이민정책은 백인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전쟁 이후 난민들이 몰려드는 것을 우려하여 이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차 대전 이후 더욱 확대되어 재정 보증 조건이나 친인척 초청 규정이 더욱 까다롭게 강화되었다. 이로써 1950-60년대 칠레의 해외 이민 유입은 감소 및 정체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칠레 이민은 큰 변화를 겪는다. 1973년 피노체트 군사정부가 수립되자 많은 칠레인들이 칠레를 떠났다. 이들은 군정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또는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갖기 위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베네수엘라, 스웨덴 등으로 난민 자격을 얻어 이민하였다. 군부 통치 기간 약 50만 명의 칠레인들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입이민도 크게 제한되었다. 특히 칠레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범주 내에서 자본을 소유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은 허용하였다. 그 결과로 역내국가 이민자가 점증하였다. 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대만, 한국 등 아시아계 이민자도 칠레로 이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기간 이민자는 감소하였다. 왜냐하면 군사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칠레에 이민하기 원하는 외국인이 줄었음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피노체트 정권은 정권안보를 고려하여 이민자를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외부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Doña 2004) 1982년 칠레의 외국인 비율은 칠레 역사상 사상 최저인 0.75%를 기록하였다.

1980년대는 칠레 이민사의 분기점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1988년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가 이끄는 군정이 패배함으로써 정치적 억압을 피해 칠레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귀국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칠레의 경제사회적 안정과 주변국의 위기로 인해 칠레가 남아메리카의 중요한 이민대상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기 침체와 페루와 볼리비아의 정치적 불안정이 이들 국가에서 칠레로 이민을 증가시킨 요인이 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새로 들어선 민간 정부들이 이전보다 더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이 증가하자 기독교민주당의 프레이 정부는 1998년 새로운 이민법을 시행하였다. 이는 불법이주자에게 1년 기간의 임시 비자를 주는 것인데 이로써 17,000여명의 페루인과 2,100여명의 볼리비아인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획득하였다.(Doña 2004) 이러한 변화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칠레 내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안데스 주변국에서 칠레로의 이주는 칠레의 경제·사회적 안정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 상위 10개국 이민자 통계(2002)

순위	출신국가	숫자	총외국인대비율	남성비율	15세이하인구 비율
1	아르헨티나	48,176	26.1	1.00	31.1
2	페루	37,860	20.5	0.66	9.0
3	볼리비아	10,919	5.9	0.84	10.0
4	에콰도르	9,393	5.1	0.83	19.5
5	스페인	9,084	4.9	1.07	8.4
6	미국	7,753	4.2	1.23	27.3

7	브라질	6,895	3.7	0.85	22.9
8	독일	5,473	3.0	0.95	10.0
9	베네수엘라	4,338	2.4	0.94	23.3
10	콜롬비아	4,095	2.2	0.82	13.8

출처 : Martínez Pizarro 2003, 32; Doña 2004.

2002년 현재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8만 4천 여명이며 이를 출생국별로 보면, 아르헨티나 26%, 페루 21%, 볼리비아 6%, 에콰도르 5% 등 남미국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61%가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특히 페루(78%)와 에콰도르 출신(67%)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칠레의 외국 이민자들의 생업으로는 장사나 가사노동이 주를 이루는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출신은 상업에, 페루와 에콰도르 출신은 가사노동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ínez Pizarro 2003, 38, 44) 칠레 거주 외국인의 남성 비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 0.91명으로 여자가 더 많은 편이며 이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연령별 구성을 보면, 페루와 볼리비아 이민자에서는 미성년 인구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국가들의 이민이 성인 중심의 노동이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칠레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거주, 직업, 나이 등에서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양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III. 반이민주의와 사회·경제적 차별

III.1 페루 이민의 특성

2002년 통계에 의하면 현재 칠레 내의 페루인은 37,860명이나 불법이주자를 포함하면 최대 7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³⁾

3) 페루 이민자 숫자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주칠레 페루대사관은 75,000, Bazo는

페루인의 칠레 이민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의 해석이 있다. 우선 이민국과 수민국간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들 수 있다. 표에서처럼 페루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칠레 국경을 넘는다.

<표 3> 칠레-페루 주요 사회경제지표(2005)

구분	총인구 (백만)	인구 성장률	일인당 생산 2004 (달러)	실업률	유아사망율 (천 명당)	평균 수명	문맹률 2003	출산율 (여성 1인당)
칠레	15.9	0.97	10,700	8.1	8.8	76.6	3.8	2.0
페루	27.9	1.36	5,600	9.6	31.9	69.5	9.1	2.5

출처 : The World Fact Book(<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5(http://www.eclac.cl/publicaciones/DesarrolloEconomico/2/LCG2292PE/lcg2292_e_Balance_preliminar.pdf)

이와 함께 양국의 인문지리적 조건도 이민을 추동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칠레와 페루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언어나 종교도 동일하기 때문에 조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또 페루 국내의 정치·경제 위기가 이민을 야기하기도 하며,⁴⁾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에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규제가 완화되어 칠레로의 이민이 이전보다 쉬워진 것도 이민을 증가시킨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칠레에 정착

65,000, Stefoni는 60,000, 칠레노동연맹은 44,000으로 보고 있다.(Ediciones Especiales *El Mercurio*; Bazo Pacheco 2004, 1; Stefoni 2002b, 117; Central Autónoma 2004, 4)

- 4) 페루 이민의 급증을 설명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이민국의 상황 즉 배출요인(push factor)을 빼놓을 수 없다. 즉 페루 국내의 위기 상황이 이민을 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20년의 이민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이 심했을 때 순 이민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지모리가 집권하여 센데로 루미노소의 테러 활동을 봉쇄하고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였을 때 이민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1999년 후지모리가 3차 집권을 시도하여 정치적 소요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이민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빠니구아 정권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민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이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면서 이민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페루인의 출이민(emigration) 추이는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Altamirano 2003)

한 이민자는 페루에 있는 이민 희망자에게 정보와 도움을 주는데 이것 역시 이민을 수월하게 한다. 산티아고 시내의 아르마스 광장은 일요일마다 휴가를 나온 페루 이민자들로 북적이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일자리와 생활 정보를 교환하고 고향 소식을 주고받는다. 이름하여 ‘아르마스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이민 ‘연줄’은 고향에 있는 새로운 이민자를 불러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페루 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성인인구가 많고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거주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페루 이민자의 15세 이하 인구 비율은 9%인데, 이는 다른 이민자 집단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로서 기혼자들이 자녀를 고향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페루 이민이 생계를 위한 노동 이민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페루 이민자들은 특정지역에 몰려 사는데, 수도권 지역에 무려 78%의 페루인이 모여 살고 있다.(Bazo Pacheco 2004, 2) 산티아고에서는 인데뻬텐시아, 레폴레파, 센뜨랄 역, 빨라사 브라질 지역 등 주로 구 도심지에 많이 거주한다. 이들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 한 달에 3-4만 페소 하는 삐에사(pieza, 일종의 쪽방)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⁵⁾ 페루 이민자의 학력은 높은 편이다. 이들의 24%가 대학교육을 받았고 59%가 중등교육을 이수하였다. 페루 여성들이 페루에서 가졌던 직업은 사무직-주부-기술직-전문직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 남성들은 주로 기술직-단순노동-사무직-전문직에 많이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학력과 경력은 칠레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페루 이민자는 주로 가사, 서비스, 비공식 상업 분야에서 일하며 특히 여성 이민자의 72%는 가사노동에 종사한다.(Central Autónoma 2004, 6; Martínez Pizarro 2003, 45)

페루 이민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여성 한 명당 남성은 겨우 0.66명이다. 이렇게 여성이 많은 첫 번째 이유는 칠레 내에 페루 여성 이민자를 위한 노동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칠레에서 가사노동은 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어왔

5) 2006년 1월 기준(달러당 약 650페소) 40-60달러 남짓한 액수이다.

다. 그래서 주로 남부의 원주민 여성들이 그 노동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가사노동자의 임금, 모성권, 휴식시간, 노동계약, 휴일 등 노동조건이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집주인과 가정부 간에는 이전과 같이 지시와 명령의 수직적 관계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서 가사노동을 하려는 내국인이 적어지면서 예전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칠레인 가정부를 구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Stefoni 2002b, 135, 136) 그래서 ‘가정부’ 정신이 약한 내국인을 대신하여 페루 여성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입국 비자를 받는데도 여성이 유리하다. 집주인의 노동계약서를 제출하면 단기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사노동은 이민 초기의 여성 이민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가정 노동은 숙식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고용의 안정이 있으며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현재 페루 여성에 대한 칠레 사회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이다. 페루 여성 이민자는 가정부뿐만 아니라 보조교사, 간호원, 요리사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페루 여성이 가정부 일자리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Ⅲ.2 반이민주의와 노동

칠레의 페루 이민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의 집단적 성격이나 규모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민의 규모와 정도에 대한 이해도 종국적으로는 그들이 이민국 사회에서 어떠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자로서의 삶이란 결국 내국인과의 관계와 작용 속에서 이해되는 것인 바,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칠레 사회의 반응 양태인 반이민주의를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실 칠레 내의 최대 이민자 그룹은 아르헨티나 이민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칠레에서 페루 이민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페루 이민이 갖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⁶⁾ 이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페루 이민이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표 4>에서처럼 1992년에서 2002년 사이 페루 이민자는 7,649명에서 37,860명으로 약 5배 정도 급증하였다. 이는 다른 주변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놀랄 만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짧은 기간에 많아질 때 내국인은 이로 인한 발생할 사회·경제적 변동을 우려하고, 이들에 대해 경계심 또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 이민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나타난 바 있다. 칠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990년대 이후 칠레의 입이민이 늘어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이민자의 ‘물결’ 또는 ‘침공’이란 표현들이 등장하였고,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페루 이민이 급증하면서 이민자들 때문에 실업문제가 악화되고 임금이 하락한다는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표 4> 상위 10개국 이민 추이

순위	국 가	1992	2002	증감률(1992-2002)
1	아르헨티나	34,415	48,176	39.99
2	페루	7,649	37,860	394.97
3	볼리비아	7,729	10,919	41.27
4	에콰도르	2,267	9,393	314.34
5	스페인	9,879	9,084	-7.77
6	미국	6,249	7,753	24.07
7	브라질	4,610	6,895	49.57
8	독일	5,603	5,473	-2.32

6) Stefoni에 의하면, 페루 이민은 더 눈에 띈다(visibilidad) 실제보다 많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루 이민자의 78%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이는 다른 이민자 집단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여서 산티아고에는 마치 페루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페루 이민은 아르헨티나 이민자와 비교할 때 인종적으로 더 눈에 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인과 칠레인은 인종적으로 유사하나 페루인은 외형적으로 원주민적 요소를 두드러져 더 눈에 띄고 그래서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페루 이민자가 최대 이민자가 아니면서도 칠레사회에서 ‘주목받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Stefoni 2004, 322)

9	베네수엘라	2,397	4,338	80.98
10	콜롬비아	1,666	4,095	145.80

출처 : Martínez Pizarro 2003, 32; Doña 2004

칠레에서 외국인 이민, 특히 페루 이민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착취로 현재화되고 있다.

이민을 반대하는 반이민주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고용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페루 이민을 최대 65,000명으로 추산한다 해도 이 숫자는 칠레 경제활동인구의 1%도 되지 않고, 또 이들이 모두 노동시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⁷⁾ 게다가 페루 이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칠레 여성들이 기피하는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칠레에서 페루 이민이 고용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두 번째 주장은 페루 이민자들이 칠레의 교육과 보건 등 복지 서비스를 ‘낭비’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다수의 페루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내국인보다 복지 서비스를 덜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들은 오히려 지출이 아니라 수입이다.(Stefoni 2002a)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노동계약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루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은 과학적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페루 이민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은 노동과 연관이 가장 깊다. 이들은 칠레 노동계층의 가장 하층부에 편입되어 있다. 다수가 가사노동이나 행상 등 비공식 부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연히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Texidó 2003, 112) 특히 불법이

7) 이민자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1% 남짓이다. 아르헨티나 4%, 코스타리카 8%, 파라과이 4%, 베네수엘라 4%, 미국 10%, 캐나다 18%와 비교할 때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인구학적으로 이민자들은 칠레의 노동시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Martínez Pizarro 2003, 23)

주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같은 노동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칠레 내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칠레에서 가사노동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출퇴근 하면서 가사일을 하는 일종의 파출부인 ‘puerta afuera’(문 밖이란 의미)가 있고 입주 가정부라고 할 수 있는 ‘puerta adentro’(실내란 의미)가 있다.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페루 여성 이민자의 61%는 집주인과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는 입주가사노동자이다. 이들은 1-2주에 한 번씩 휴일을 가지며 월급은 약 12-16만 페소(180-250 달러)이다. 입주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노동과 휴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들의 일터인 저택은 대부분이 대중교통편이 닿지 않는 주택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휴일에도 집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수의 페루 여성 이민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민자는 범죄에 취약하다. 이민자는 사기나 협박과 같은 범죄에 걸려들기 쉬우며 밀입국 알선 조직의 단골 피해자이다. 이외에도 공항이나 국경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기 일쑤이다. 이민국 직원들이 페루사람들에게 체재비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소한 이유로 강제 출국당하는 일이 생겨 국가 간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Ardito Vega 2001)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칠레에 거주하는 페루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내국인들의 반이민주의는 점진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동시에 페루 이민자들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IV. 반외국인주의: 제노포비아와 ‘생각’의 차별

IV.1 제노포비아의 개념과 정의

제노포비아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일부 계층이 공유하고 있는 외국

인에 대한 거부, 차별, 천시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를 의미한다.⁸⁾ 따라서 제노포비아는 외국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현상인 동시에 권력적이며 정치적인 작용이기도 하다. 즉, 제노포비아는 주체와 대상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데 여기에 제노포비아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외국인에 가해지는 착취, 멸시, 선동은 이미 그 자체로 힘의 관계이며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제노포비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인구그룹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민자이다. 오늘날 이민은 시장경제의 세계화, 국경의 개방, 경제블록의 강화, 국가 간·지역 간 빈부 격차의 확대 등으로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고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노포비아는 전지구적 이슈가 되었다.

제노포비아는 크게 문화적 침해와 물리적 폭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는 이들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는 문신, 현수막, 전단지, 연설, 캠페인이 있으며 후자에는 공격, 추방, 린치, 방화, 살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는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데 타인에게 가해지는 권리 침해의 행태만을 놓고 본다면 제노포비아와 인종차별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제노포비아가 다른 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인종차별이 다른 인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종이란 개념의 추상성과 모호성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백인으로 간주되는 아일랜드인들이 미국 역사 초기에는 백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종이 불변의 생물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관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⁹⁾ 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인종간 혼혈의 진행으

8) 제노포비아의 *xenos*는 외국인, 이방인을 의미하며 *phobos*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인 혐오나 기피로 이해되며 때때로 인종차별의 한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http://en.wikipedia.org/wiki/Xenophobia>) 제노포비아는 외국인이나 타지인에 대해 두려움 또는 거부감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L. Sills 1968, 81)

9) 1700년대 중반 뉴욕에서 노예들의 반란 모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흑인들과 함께 일부 아일랜드인들도 참여하였다. 당국 조사에서 아일랜드인들은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백인’을 죽이려 했다고 대답했다. 당시 이들은 백인으로 간주되지 않았

로 국적과 인종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즉, 인종과 인종(차별)주의란 것이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정치·경제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추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타국인과 타인종의 구분으로 제노포비아와 인종차별을 나누어 이해하긴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제노포비아와 인종차별을 인식론적 측면에서 구분할 수도 있다. 제노포비아와 인종주의는 인식관계에서는 주체와 객체로서 병립한다. 현상학적으로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는 같은 행동을 지칭하나 대상에 의해 인식되는 차별과 천시는 인종주의이고 반면에 주체에 의해 경험될 때 그것은 제노포비아이다.(Mushakoji 2004, 27) 예를 들어, 칠레에 이주한 페루인에 대한 차별은 페루에게는 인종차별이며 칠레에게는 제노포비아로서 경험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노포비아와 인종차별은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명제의 두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제노포비아나 인종주의 모두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거부와 제외를 의미하지만 제노포비아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격리를 주장하더라도 이들이 사회문화적으로 동화가 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종주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Vargas Llosa, “Racismo y Xenofobia”)

IV.2 칠레의 제노포비아

오늘날 폭력을 수반하는 제노포비아는 법·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 가해지는 경멸이나 천시와 같은 ‘생각’의 차별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제노포비아는 문화의 차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칠레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차별’은 정복과 식민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원주민은 영토의 정복, 문화유산의 침탈, 정치·문화적 패권, 강제노동, 항복과 개종으로 인해 식민체제의 최하위에 놓이게 되었고 그 후 오랜 기간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의 제노포비아는 인종·종족 차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또

었다.(빌 플레처 주니어 외, 15)

차별과 경계는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정치문화와도 밀접하다. 아르헨티나의 역사학자 알베르토(Luis Alberto)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민족주의의 소름끼치는 ‘왜곡’이라고 평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이웃은 협력자이기보다는 경쟁자이며 나아가 위협자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비록 북미자유무역협정, 메르코수르, 안데스 공동체 등과 같은 협력체가 생기곤 있지만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 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내재적으로 존재하며 때론 먼 나라보다 라틴아메리카의 이웃 국가를 더 경계한다”고 보았다.(Braun)

차별과 거부의 문화는 언어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파라과이와 볼리비아 이민자를 ‘검은 머리’(cabecitas negras, 젊은 이민자란 뜻도 있지만 아이마라 부족을 비하하는 말)라고 부르며, 칠레에서 페루와 에콰도르 사람은 출로(cholos, 혼혈인 ‘놈’이란 의미)라고 비하되며, 페루에서 에콰도르 사람들은 모노(monos, 과야킬 부족을 낮춰 부르는 말)라고 불린다.(Hopenhayn 2001, 43) 이처럼 특정 종족에 대한 경멸이나 비하를 외국인과 동일시하는 언어문화는 인종차별과 결부된 라틴아메리카 제노포비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칠레 나치즘과 제노포비아의 깊은 관련성도 주목할 만하다. 칠레는 유럽, 특히 독일계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독일에서 나치즘이 태동한 시기와 거의 동시대에 칠레국민사회주의운동(Movimiento Nacional-Socialista de Chile, MNSCH)이 성립되었을 정도로 나치즘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다. 따라서 현재 칠레에는 정당뿐만 아니라 스킨헤드족과 같은 사회집단까지 출현하여 나치즘에 동조하는 단체가 무려 35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 동성애자, 힙합족 등 칠레 사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적 애국주의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반외국인주의를 내세우는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하려 시도한다. 또 간혹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여 아직 일부

이긴 하지만 신나치 또는 민족주의를 내세운 인종차별주의적 비밀 조직이 폭력의 사용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한다.(www.chile.com 2005/5/20; Neonazi <http://es.wikipedia.org/wiki/Neonazi>)

칠레에서 나타나는 제노포비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의 정도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칠레 남부는 아르헨티나 이민자가 많고, 중부는 페루인이 많고, 북부는 페루와 볼리비아 이주민이 많다. 칠레에서 아르헨티나 이민자는 경제사회적으로 칠레 사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페루와 볼리비아 이민자는 칠레 경제의 ‘짐’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는 이민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중부와 북부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rganización Internacional 2002, 8, 9) 마찬가지로 칠레 사람들이 주변국에 갖는 감정과 인식의 정도를 이해하는 것도 칠레의 제노포비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한 조사에 의하면 칠레인들은 주변국가보다 자신들이 더 인종적으로 동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www.chile.com 2002/9/9) 칠레 어린이의 46%가 페루와 볼리비아가 자국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www.chile.com 2004/11/23) 또 칠레 내에 국적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며 특히 칠레 젊은이들이 외국인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다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다.(Hopenhayn 2001, 46) 이러한 사실들은 칠레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칠레의 제노포비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양상은 이민자에 대한 이미지 고착과 그를 통해 갖게 되는 칠레인들의 우월감이다. 우선 노동의 고착이 이미지의 고착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칠레인들의 집단 상상력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nanas peruanas’(페루 가정부)는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페루 여성 이민자가 가사노동에 많이 종사하기 때문에 “페루 여자들은 가정부로 적합하다”라는 하나의 ‘신화’가 형성되고 여기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페루 이민자와 관련된 범죄, 음주, 빈곤, 불법 등의 부정적 이미지와 더해져서 결국 “페루 여자에겐 가정부 일이 맞고 남자에게는 건축 막일이 십상이

다”라는 페루 이민자 전체에 대한 ‘낙인찍기’(stigmatization)가 이루어진다. 노동의 집중과 고착이 사회문화적 편견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페루 이민자는 가사노동과 건설현장 외에 다른 일자리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Stefoni 2002b, 139-140) 노동의 고착이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그것이 다시 이들에게 일자리와 일거리를 제한하는 일종의 노동과 문화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페루 이민자의 ‘열악한’ 생활상에 대한 뉴스가 이들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노동자이기보다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 페루 이민자들이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거나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방한 칸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과장 보도하여 ‘페루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산다’는 식의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Bazo Pacheco 2004, 4)

페루에 대한 칠레인의 우월감은 이민자의 노동 현장에서 적용된다. 페루여성의 가사노동 집중 현상은 이와 관계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칠레 여성들이 기피하는 가사노동은 외국인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볼리비아 이민자는 주로 북부지역과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 가정의 가사노동을 할 수 없으며, 아르헨티나 이민자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이민을 오게 된 도시 중산층 출신이 많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원치 않는다. 또 아직까지 일부 칠레인들은 아르헨티나를 남미의 중심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여성을 하인처럼 부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많은 칠레 사람들이 칠레가 역사적으로 페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페루사람은 비교적 다루기 쉬운 상대로 여긴다.(Ortega 2003)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칠레인들은 페루 여성 가정부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페루 여성의 가사노동 집중은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구매하는 수요-공급의 일치라는 측면 외에도 외국 이민자에 대한 칠레인의 차별적 인식과 시각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V. 반페루주의: 불신과 차별의 역사·문화

페루인에 대한 칠레사회의 차별은 내국인이 외국인에 행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적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가는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경쟁과 대립이 존재하는 범주인 동시에 이해의 동질 공동체이며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반응과 행동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국가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국가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칠레와 페루는 이중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사회적으로 양국 간의 상호 의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간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고 칠레의 페루 투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며 2005년 양국 간 무역은 사상 최초로 15억 달러를 돌파했고 2006년 8월에는 양국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2004년 칠레를 방문한 페루인은 19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보다 훨씬 많은 53만 명의 칠레 사람들이 페루를 방문하여 페루는 칠레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여행하는 나라가 되었다.(Fuentes 2005, 74) 또 페루인의 칠레이민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상호간의 교류와 의존이 더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양국가와 양국민 간의 상호 인식은 이와 다르다. 최근 페루 의회에서 칠레 국기가 바닥에 집어 던져져 양국 간 외교문제가 되고,¹⁰⁾ 수년전 칠레가 에콰도르에 무기를 판매한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현실은 양국의 취약한 신뢰 기반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¹¹⁾ 월드컵과 같은 페루-칠레간 스포츠 경기는 남미에서

10) 2005년 8월 페루 의회에서 여야 의원 간에 대칠레 외교 정책에 대해 설전을 벌이던 중 칠레 국기가 바닥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틀레도 대통령이 라고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하여 간신히 일단락되었다.(www.chile.com 2005/8/26)

11) 페루와 에콰도르 간에는 1941, 1981, 1995년 세 차례의 국경분쟁이 있었다. 이는 아마존 유역의 자원 확보에 대한 양국의 이해 충돌로 발생했는데 1998년 국제 중재로 국경 획정 협정이 체결하여 마무리되었다. 1995년 페루-에콰도르간의 국경 분쟁 당

가장 치열하고 위협한 시합으로 간주되어 온 지 이미 오래이며 각종 선거에서 양국 관계는 항상 주요 이슈가 되곤 한다.¹²⁾ 장비 현대화란 미명하에 양국 간에 군비 경쟁도 지속되고 있다. 많은 페루 사람들이 칠레를 남미의 이스라엘이라 비난하며 반대로 칠레사람들은 페루의 국민 스포츠는 축구가 아니라 ‘불평하기’(quejarse)라고 비꼰다. 따라서 국민 정서의 측면에서 양국 관계는 독일-프랑스와 비슷한 운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Cisneros 2005, 79)

이처럼 대립과 협력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양국 관계의 기저에는 역사유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반외국인정서 또는 주변국에 대한 경계는 자국의 국경사와 무관하지 않다. 칠레는 북쪽으로는 사막,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안데스, 남쪽으로는 남극과 접하고 있어 마치 대륙의 섬과 같은 지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인 성향을 보여 왔으며 이런 지리적 격리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차별적이었다.(Doña 2004) 그래서 칠레인들은 외국인, 특히 주변국 국민들을 수용하는데 있어 비교적 수동적이다. 게다가 칠레는 페루, 볼리비아와의 경쟁을 통해 국경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주의와 경계심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879년 발발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여 칠레는 페루로부터 아리카와 타라파카를, 볼리비아로부터는 안토파가스타를 얻어 현재의 국경을 획정하였다. 따라서 페루와 칠레에게 국가 관계는 공존과 협력보다는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잃어버리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기억되어 왔다.

시 칠레 정부가 에콰도르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2005년 3월 보도되어 칠레-페루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정부 간에 약 두 달 간 치열한 공방이 거듭되었고 진행 중이던 양국 간 자유무역협상도 중단되었다.

- 12) 최근 치러진 페루 국민투표에서도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감정을 의식하여 반 칠레적 내용의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였다. 알란 가르시아 후보는 칠레는 남미 시장에서 페루의 강력한 라이벌이며 향후 15년 이내에 칠레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공약했고, 또 칠레에 맞설 ‘이해할 만한’ 수준의 군비 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파 성향의 우말라 후보도 항만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 칠레 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며 항공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Lanchile에 맞서기 위해 국적 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하였다.(Terra/Reuters 2006/4/4, <http://www.terra.com/noticias/articulo/html/act376213,2.htm#>)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해양국경문제가 양국 관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페루는 새롭게 등거리선 해양 국경(그림의 점선) 확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칠레는 기존의 평행 국경선을 고수하고 있다. 페루 측 요구대로 국경선이 조정되면 페루는 약 35,000km²의 해양을 더 획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칠레는 1952년 국경조약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국경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페루는 이 문제를 이슈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페루 의회는 만장일치로 칠레와의 해양국경을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www.chile.com 2005/11/3)



〈그림 1〉 페루-칠레 해양국경

최근 페루의 정치·사회적 혼란이 수습되고 칠레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양국 관계도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투자와 교역이 늘어나고 양국 간에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국제 관계의 가장 견고한 부분인 시장의 협력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다 국경 문제는 양국이 협력과 공존의 관계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자 동시에 양국관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 문제는 빈번하게 국민을 민족주의로 몰아넣기도 하고 국가가 ‘영토 수호’의 깃발을 들고 제노포비아를 조장하게끔 하기도 한다. 칠레와 페루 관계의 심연의 역사에는 국경 전쟁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페루의 반칠레주의와 칠레의 페루에 대한 차별과 배타성이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VI. 맺는 말: 이등시민 또는 신 시민

이민자의 생활은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의 작용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공동체의 집단적 특성과 그들이 이민국 사회에서 갖는 시민권적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원천적으로 이민자는 ‘약한’ 존재이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왔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정착하기 위해 그 곳의 조건과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부모는 일터에서, 자녀는 학교에서 차별받기 일쑤이며, 국가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도 제약이 있으며, 정체성 상실의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이민자 집단이 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차별, 반감, 경계, 혐오감, 두려움 등이 더 커진다. 칠레의 페루 이민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페루인의 칠레 이민이 크게 늘면서 칠레 사회에서 페루인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은 더 증가하였다. 이외에 양국 간에 존재하는 집단적 감정과 정서도 이민자의 삶에 개입하게 된다. 특히 국경 전쟁의 역사에서 비롯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은 칠레에서 생활하는 페루 이민자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칠레 사회에 존재하는 반이민주의와 페루인에 대한 차별, 칠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노포비아와 반페루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페루 이민자는 칠레의 ‘이등시민’의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13) 칠레는 국적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

오늘날 이민은 세계화의 결과인 동시에 세계화를 이끄는 경로이다. 세계화로 이민이 더 빈번해졌지만 동시에 이민으로 한 나라의 삶의 양식, 언어, 문화, 소비, 정보가 다른 나라로 이동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특성이 출현하게 되었다. 칠레의 페루인도 마찬가지다.

10년 전만 해도 페루인은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산티아고의 리틀 리마(Little Lima)에는 페루 상점, 송금소, 페루 식당 등이 성업 중이며 거리는 많은 페루인들로 붐빈다. 아르마스 광장은 양국의 문화 국경이다. 일주일간 헤어졌던 가족과 친구들이 만나고, 또 칠레인과 페루인의 삶이 접합되며 양국의 음식, 춤, 노래가 만나는 접선인 것이다. 또 페루 이민자 공동체가 확대되면서 인권과 종교 활동을 위한 단체가 생기고, 경제·문화·예술과 관련된 각종 친목 동호회가 조직되고, 독립기념일이나 밀라그라스 성모 축제 같은 각종 교민 행사가 열린다. 이로써 페루 이민자 커뮤니티는 더욱 공고화된다. 이리하여 리틀 리마는 산티아고에서 ‘당당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페루 이민자들은 본국과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한다. 이 연계의 핵심은 가족인데 이민자는 자녀 또는 배우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소통하며 살아간다. 또 본국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송금을 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페루와 칠레를 잇는 이민자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칠레에 이민 온 페루인의 대부분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민을 결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하게 된다.¹⁴⁾ 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으로 생긴 식당, 송금소, 상점, 전화방 등은 다시 칠레-페루간의 소통을 더욱 수월하게 재생산시킨다. 이로 인해 페루 이민자의 양국적성(binationality)은 더욱 강

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주권은 국방의무와 피선거권만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미 이민자, 특히 페루 이민자가 영주권을 얻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학력, 입국 자격 등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동일한 고용주와 최소 2년 이상 노동계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Stefoni 2004, 332)

14) 페루 이민자의 86%가 이민을 결심하기 전에 아는 페루사람이 칠레에 있었다고 응답했고, 또 이민 와서 첫 번째 일자리를 구할 때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85%였다.(Stefoni 2004, 329)

화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페루 이민자들은 칠레 사회에서 경계와 차별을 받는 이등시민이다. 그러나 이들은 페루와 칠레를 모두 아우르는 ‘신 시민’이기도 하다. 페루 이민자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칠레 내에서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으며 동시에 본국과 지속적인 연계를 가지는 양국적 삶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 내의 페루 이민자의 삶의 양태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바르가스 요사의 말처럼, “모든 이민은 생활과 에너지와 문화가 충만한 일종의 영양주사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¹⁵⁾ 우리는 지금 혼혈강세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문화와 인종의 퓨전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페루 이민자 문제의 해결은 이민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민권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페루인의 칠레 사회 통합은 페루적인 것을 칠레 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문화,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조화시키고 융합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status of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Peruvian migrants in Chile. At the present time many changes have occurred in international migration within South America, amongst which the case of Chile stands out.

During the nineties, that country experienced a transformation in the composition of immigrants stocks. The massive entrance of the Latin American immigrants and the diminution of European raise the possibility that Chile could become an immigration country. Peruvians

15) “Inmigración de cualquier color y sabor es una inyección de vida, energía y cultura y que los países deberían recibirla como una bendición”, Vargas Llosa(<http://www.oni.escuelas.edu.ar/olimpi98/BajarondeLosBarcos/Xenofobia/texto.htm>)

are significantly a massive group of immigrants to Chile.

Referring to the Peruvian immigration in Chile, it is worth to mention the phenomenon of feminization. The majority of Peruvian women are occupied in the domestic service as 'asesora del hogar'(a housemaid). Also, the anti-immigration or xenophobia in the Chilean society begins to be noticed in accompany with the increase of the foreigners.

The border war of 1879 was very significant in setting the standards of the relationship of Chile-Peru. The warfare ended but the boundary dispute is not solved completely yet. So the anti-Chilean sentiment appears and likewise, the Chileans feel an antipathy against the Peruvian people.

The Peruvian migrants are monitored and discriminated very often in the Chilean society. They are a 'second class citizen'. But they know both well Peru and Chile so they would be considered as a 'new citizen'. The Peruvians are making firm their migrant community and are communicating continuously with Peru. Therefore, they are living in a binational way. Consequently the life of Peruvian immigrants in Chile has multi-level and complex characteristics.

Key words: Migration, Human Rights, Peruvian Immigrants, Chile, Xenophobia /
이주, 이민, 인권, 페루, 칠레, 반외국인주의

논문투고일자: 2006. 10. 28

심사완료일자: 2006. 11. 20

게재확정일자: 2006. 11. 21

참고 문헌

[저서]

- 강석영(2003), 『칠레사』, 한국외대출판부.
- 빌 플레처 주니어 외(2004), 『정체성 싸움 서구의 인종주의』(지주형 역), 미세기.
- Loveman, Brian(2001), *Chile the legacy of Hispanic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 보고서]

- Altamirano, Teófilo(2003), “El Perú y el Ecuador: Nuevos países de emigración”, Quito: Globalización, Migración y Derechos Humanos(국제회의).
- Ardito Vega, Wilfredo(2001), “Peruanos en Chile: Buscando una nueva oportunidad”, *Ideele*(no. 149), Lima.
- Bazo Pacheco, Francisco(2004), “La visión desde los migrantes”, Encuentro Perú-Chile El desafío de la solidaridad: Los migrantes peruanos en Chile, Lima, p. 1, 2, 4.
- Braun, María & Helena Rovneri, “América Latina: el miedo al vecino”(http://home. arcor.de/tpsipol/19980303.html)
- Central Autónoma de Trabajadores de Chile(2004), Documento de Trabajo, El desafío de la Solidaridad, Santiago, p. 4, 6.
- CEPAL(2001), “La migración internacional y el desarrollo en las Américas”, Santiago: CEPAL.
- _____ (2005),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5”(http://www.eclac.cl/publicaciones/DesarrolloEconomico/2/LCG2292PE/lcg2292_e_Balance_preliminar.pdf)
- Cisneros, Luis Jaime(2005), “La guerra que nos delató”, *Ideele*(no. 171), Lima, 2005. 6, p. 79.

- Doña, Cristián & Amanda Levinson(2004), “Country Profile, Chile: Moving Towards a Migration Policy,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information.org/Profiles/display.cfm?id=199>)
- Fuentes, Claudio(2005), “Perú-Chile: Para iniciar un nuevo tipo de relación”, *Ideele*, no. 171, Lima, 2005.6, p. 74
- Hopenhayn, Martin & Alvaro Bello(2001), “Discriminación étnico-racial y xenofobia en América Latin y el Caribe”, Santiago: CEPAL, p. 43, 46.
- Martínez Pizarro, Jorge(2003), “El encanto de los datos. Sociodemografía de la inmigración en Chile según el censo de 2002”, Santiago: CEPAL, p. 17, 23, 32, 38, 44, 45.
- Mushakoji, Kinhide(2004), “The Phenomenon of Xenophobia in Relation to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UNESCO, Studies on Human Rights 2004 Struggle against Discrimination, Paris, p. 27
- Organización Internacional para las Migraciones(2002), *Informe Síntesis Estudio Exploratorio Diagnóstico y Percepción sobre la Migración Limítrofe/Fronteriza en Chile*, Santiago, pp. 8-9.
- Ortega, Soledad(2003), “Mujer, inmigrantes y peruana”, *MUJER HOY*, 2003/8/19(<http://www.mujireshoy.com/secciones/1140.shtml>)
- Stefoni, Carolina(2002a), “Inmigración en Chile. Mitos que confunden”, *El Metropolitano*, 2002/4/30
- _____ (2002b), “Mujeres inmigrantes peruanas en Chile”, *Papeles de Población* 33, México: Universidad Autónoma del Estado de México, p. 117, 135, 139, 140.
- _____ (2004), “Inmigración y Ciudadanía: La Formación de Comunidades Peruanas en Santiago y la Emergencia de Nuevos Ciudadanos”, *Política*(no. 43), Santiago: Universidad de Chile, 2004. p. 23, 329, 332.
- Texidó, Ezequiel, et. al.(2003), *Migraciones laborales en Sudamérica: el*

Mercosur ampliado, Ginebra: Oficina Internacional del Trabajo,
p. 112.

[언론, 사전, 기타]

Ediciones Especiales El Mercurio, “Somos una de las colonias más activas”, Chile(<http://www.edicionesespeciales.elmercurio.com/destacadas/detalle/index.asp?idnoticia=0128072005021X1040058&idcuerpo>)

L. Sills, David(ed.)(1968),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acMillan & Free Press, Vol. 12.

Vargas Llosa, Mario, “Los Inmigrantes”(http://www.oni.escuelas.edu.ar/olimpi98/BajarondelosBarcos/Xenofobia/texto.htm); “Racismo y Xenofobia”(http://www.sodepaz.org/construyendolapaz/Construyendo%20la%20paz/Racismo%20y%20Xenofobia.html#Racismo)

Terra/Reuters 2006/4/4(<http://www.terra.com/noticias/articulo/html/act376213,2.htm#>)

The World Fact Book(<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index.html>)
www.chile.com 2002/9/9, 2004/11/23, 2005/5/20, 2005/8/26, 2005/11/3.

Neonazi(<http://es.wikipedia.org/wiki/Neonazi>)

Xenophobia(<http://en.wikipedia.org/wiki/Xenophobia>)